

언론의 정치적 성향이 뉴미디어 정책 관련 사설의 의제 및 보도 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the Ideological Tendency of the Press on the Theme and the Tone of the Press Related with New Media Policy

홍주현*, 김경희**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한림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Juhyun Hong(joohssy@kookmin.ac.kr)*, Kyung-Hee Kim(khkim@hallym.ac.kr)**

요약

한국사회에서 뉴미디어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언론이 뉴미디어 의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분석하고,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뉴미디어 정책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설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언론과 정부의 정치적 성향 일치 여부가 정부의 뉴미디어 정책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정권이 집권한 시기에 보수 언론은 뉴미디어 정책을 지지한 반면, 진보 언론은 정부의 정책을 반대했다. 이용자 관점, 사회적 관점, 정책적 관점에서 뉴미디어 의제를 분석한 결과, 신문사들은 뉴미디어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 정책에 대한 설명 등 정책적 관점에서 주로 접근했다. 사설이 뉴미디어 정책 효과에 대한 언론사의 의견을 밝히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 정책에 사설대한 언론의 태도가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뉴미디어의 도입과 확산에 정부의 투자와 인력 등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중심어 : 뉴미디어 | 의제 | 네트워크 분석 | 정치적 성향 | 언론과 정부 |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the media covered the new media agenda in the process of the diffusion of new media and what the press's attitude about new media policy is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s and the government based on the political tendency. For this, this study conducted network analysis. The agreement of political tendency between the press and the government is important variable to decide the attitude of the press about the new media policy. Under the conservative government, the conservative press supported the new media policy, however the opposite opposed it Even if opinion page can take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public opinion, the tone pf editorial page on the new media policy differs from its political tendency. It costs tremendous investment in introducing new media, journalists have judge.

■ keyword : | New Media | Agenda | Network Analysis | Political Tendency | the Press and the Government |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4A01037022)

접수일자 : 2016년 11월 23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2월 29일

수정일자 : 2016년 12월 19일

교신저자 : 김경희 e-mail : khkim@hallym.ac.kr

I. 문제제기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뉴미디어가 도입된 이후 언론이 뉴미디어와 관련된 의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밝히고자 했다. 뉴미디어 확산 과정에서 언론은 뉴미디어 도입의 필요성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뉴미디어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여론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 뉴미디어는 신문과 지상파 방송과 같은 올드 미디어를 제외한 매체를 의미하며, 케이블, 인터넷, 위성 등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미디어를 모두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케이블 텔레비전(중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IPTV, 인터넷, 모바일을 포함한다.

매스 미디어가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 뉴미디어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의견의 다양성(diversity), 비동시성(anychronization), 개인화(personalization)의 특성이 있다 [1]. 인터넷과 모바일의 결합으로 이동성(mobility)이 강화되면서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매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게 되었다.

뉴미디어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도입 의지가 중요하다. 미디어 시장의 특성상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뉴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뉴미디어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고, 도입의 긍정적 효과 또는 부정적 효과를 가늠하는데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설은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트레이트 뉴스와 다르다.

이 연구는 뉴미디어의 도입 이후 신문 사설에서 뉴미디어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쟁점화 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시기별로 뉴미디어 의제를 밝히기 위해 뉴미디어 의제를 이용자 관점, 사회적 관점, 정책적 관점으로 구분했다. 뉴미디어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능주의의 관점에서 뉴미디어 의제에 접근한다고 볼 수 있다. 기술결정론의 관점에서 보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정보 공유를 통해 개인의 지식을 확장시키고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며 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뉴미디어의 등장을 단순히 사회적·정책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 없고 개인적 측면, 즉 이용자 관점에서의 논

의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용자 관점에서 신문사설의 뉴미디어 의제는 뉴미디어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다루는 것으로 매체가 이용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사회적 관점에서 신문 사설의 뉴미디어 의제는 뉴미디어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 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의미한다. 정책적 관점에서 신문 사설의 뉴미디어 의제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뉴미디어 도입이나 채널 개편,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사설의 내용을 분석한 후 이용자, 사회적, 정책적 관점에서 뉴미디어 관련 의제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 : 정부와 언론의 관계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때로는 호의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적대적이기도 하는 등 사회적 상황이나 언론의 성향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관계이다. 언론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정부에 협조하기도 하지만, 제4부로서 정부의 일들을 비판하기도 하는 등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슈메이커와 리즈는 미디어 계층모델에서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으로 정부를 언급했다.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이 정부와 다르다면, 정부와 언론은 갈등관계에 놓일 수 있다. 외적 차원에서는 정부가 정부와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 또는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기사 내용의 삭제나 수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2].

조직 차원의 정치적 성향은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칸과 케니는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미국 언론의 사설과 뉴스를 분석한 결과 신문사 소유주와 기자의 정치적인 신념이 사설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했다[3]. 이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뉴스에서 선택한 정보도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다. 기자의 정치적 성향도 미디어 내

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 차원에서의 정치적 성향이 기사의 선택과 논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중요하다. 출입처는 정부와 언론의 연결고리가 되는데 박동숙과 동료들(2001)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취재활동은 공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과정은 사적인 관계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압력이전에 저널리스트 개인이나 조직 차원의 내적·자발적 통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4].

조직 차원에서 언론의 정치적 성향이 정부의 정책 이슈에 대해 지지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엇갈린다. 켄즈코우와 페텍, 샤피로는 1932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언론에 대한 정부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는데, 공화당 정부는 공화당 언론을 지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5]. 반면, 이들이 2005년 신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부나 정당의 정치적 성향과 신문의 정치적 성향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역과 연방 정부에서 정부와 언론의 정치적 성향이 일치하는지가 신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한적으로 밝혀진 만큼 언론과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일 수 있고, 호의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정부가 언론의 중요한 취재원이라는 점에서 언론은 정부 취재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긴장 관계를 형성되기도 한다.

한편,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은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대상에 대한 보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슈별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한 최현주(2010)는 '대북지원', '중부세 폐지'에 있어서 동아와 조선일보가 보수적으로, 한겨레신문이 진보적으로 보도했음을 밝혔다[6]. 또 동아·중앙·조선의 사실 분석을 실시한 김세은(2010)은 세 신문 모두 반공 이데올로기/국가경제성 차원과 좌우 차원에서 높은 보수성을 나타냈으며, 특정 몇몇 분야에서 진보적 견해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세 신문의 사설에서는 전반적인 보수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분석했다[7]. 이러한 태도는 결국 정부의 정책을 다루는 기사에서 더 잘 드러났기 때문에 언론의 정치적 성향뿐 아니라 언론과 정부의 정치적 일치여부가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언론의 정치적 성향과 정부의 정치적 성향의 일치여부가 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치적 성향의 일치여부를 중심으로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유형화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정부보다 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언론과 정부의 정치적 성향의 일치여부를 나타낸 [표 1]에 따르면, 언론과 정권의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에 따라 네 개의 유형화된 집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언론과 정권 둘 다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일 경우에는 정치적 성향이 일치하는 두 유형이 존재하고(I 과 IV), 정권과 언론의 정치적 성향이 II와 III처럼 불일치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표 1. 언론과 정부의 관계

언론과 정권의 관계		정권의 정치적 성향	
		보수적	진보적
언론	보수적	I. 일치	II. 불일치
	진보적	III. 불일치	IV. 일치

언론과 정권의 관계는 조직적 차원에서 언론사 조직의 정치적 성향이 정부와 일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언론의 정치적 성향이 정권과 일치할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보수 정권이 집권한 시기에 보수 언론은 정부의 뉴미디어 정책을 지지하는 반면, 진보 언론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 입장을 나타낼 것이다. 스트레이트 뉴스와 달리 오피니언 난에서는 신문의 입장이나 주장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뉴미디어 확산과 관련하여 신문의 사설에 주목했다. 공영방송인 KBS가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파적으로 분열되었다고 한 최영재(2014)는 진보정권 10년 동안 공영방송이 진보적 정파 편향으로 재편되었

고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보수적 정파 편향으로 급전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실제 기자들에게 언론사의 정치 종속적 지배 구조가 보도국 인사에 미치는 영향을 질문한 결과, ‘정치권력과 코드가 맞을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연구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 현상을 연구했지만, 신문 등 다른 언론에도 적용될 수 있는 연구결과이며, 뉴미디어 의제를 다루는데 있어 언론의 정파적 성향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런 맥락에서 뉴미디어 의제와 관련해 언론의 정파적 성향의 영향을 규명하는 일은 저널리즘 관점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2. 현실 구성의 관점에서 본 사설의 여론 형성 기능

사설은 신문과 독자 간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고, 사실과 객관적 수치, 통계 등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는 공간이다. 사설은 논리적인 근거를 사용하고,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 독자를 설득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사의 뉴스가치, 현실에 대한 시각, 관점을 보여준다[8].

뉴미디어 확산과정에서 사설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사설이 특정 시기에 뉴미디어 관련 이슈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뉴미디어의 도입이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정치적 성향이 사설의 방향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보였다. 스트레이트 뉴스와 달리 사설은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의견으로 언론의 현 정권 정책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나타내고, 독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를 제기한다.

사설의 해설기능은 쟁점에 대한 지식이 적고, 이슈에 대한 태도가 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에 사설의 영향력은 적지 않다고 하겠다. 뉴미디어 관련 사설을 분석할 때 언론의 정치적 성향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찬반입장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사회적 현실 구성 이론에 따르면 객관적 현실을 언론이 어떻게 틀 짓는지에 따라 독자들의 주관적 현실구성이 달라진다[9]. 보수 언론의 독자와 진보 언론의 독자들 간에는 동일한 현실

에 대해 서로 다른 상(image)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언론은 지면과 시간, 인력이 부족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취재할 수 없다[10]. 저널리스트에 의해 현실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중요한 것이 선택된다. 미디어가 특정 이슈를 쟁점화 하는 것을 미디어 의제(media agenda)라고 하며, 미디어 의제는 언론에서 신문, 방송에 적합한 형식으로 구성된다. 내가 중앙일보의 독자라면 중앙일보에서 보여주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직접 현실을 경험하지 않았기에 중앙일보가 구성한 현실을 진짜 현실로 인식하기 쉽다. 한겨레신문의 독자라면 반대로 한겨레신문에서 구성하는 현실을 실제 현실로 인식할 것이다. [그림 2]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데, 실제 현실과 미디어에 의해 구성된 현실은 독자들의 사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독자들은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현실 인식 과정에서 독자가 어느 미디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지는 독자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설은 쟁점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한다는 점에서 스트레이트 뉴스보다 독자들의 현실 인식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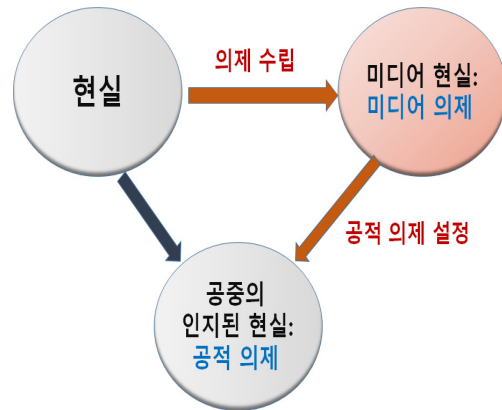


그림 1. 미디어에 의한 주관적 현실 구성 모델

3.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사설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

사설을 분석하면서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언론을 구분한 이유는 정부의 정책 도입 및 확산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뉴미디어가 사회에 정착하려

면 뉴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필요, 이용하는 사람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 뉴미디어를 확산시키는 조직 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초기 설립 비용이 많이 들고, 뉴미디어가 보급되려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뉴미디어 의제는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언론과 정부의 관계는 호의적 관계와 적대적 관계, 중립적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호의적 관계일 경우 정부의 뉴미디어 관련 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고, 적대적 관계일 경우 부정적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상황에 따라 관계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겠지만, 이 연구는 언론과 정부의 정치적 성향을 중심으로 이들의 관계를 구분했다. 보수 언론인지, 진보 언론인지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떠나 정책을 지지할지, 반대할지를 정하는데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뉴미디어의 도입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언론의 관계를 기준으로 신문 사설에 나타난 뉴미디어에 대한 보도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뉴미디어의 도입부터 확산까지 의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규명하기 위해 먼저 뉴미디어시기를 새로운 매체의 도입과 대중화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시기별로 어떤 이슈가 쟁점화 되었는지 매체의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연구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1990년대부터 2016년까지 뉴미디어 도입 시기별로 뉴미디어 관련 의제는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가?

둘째, 1990년대부터 2016년까지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간에 시기별로 뉴미디어 관련 사설에서 다른 주체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셋째, 1990년대부터 2016년까지 뉴미디어 도입 시기별로 언론과 정권의 관계에 따라 이용자 관점, 사회적 관점, 정책적 관점에서 뉴미디어 의제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III. 연구 방법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뉴미디어 관련 의제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기 위해 보수적 성향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선택했고, 진보적 성향의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을 선택했다.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기존 연구를 통해 볼 때 정치이념과 경제이념에 있어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보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진보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11]. 또 이슈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긴 했지만 조선과 동아일보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냈다는 분석도 있다. ‘중부세 폐지’ 이슈에서 경향과 한겨레신문은 진보진영으로 분석됐으며[12], 한겨레 신문은 북한문제에 대해 진보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13].

특히 본 연구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한 확산3기에는 종편 소유 여부에 따라 뉴미디어 의제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했다. 조선일보는 TV 조선을, 동아일보는 채널A를 소유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신문만 소유한 언론사이다.

1. 연구 설계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표 2]와 같이 연구 설계를 했다.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탐색적 차원에서 한국사회에서 뉴미디어의 등장과 사회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국사회에서의 뉴미디어 확산의 시기별 특성과 사회변화’를 알아보는 파일럿 연구를 실시했다. 파일럿 연구는 분석 기간 동안의 신문 기사와 뉴미디어 법규, 정책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자료 분석을 통해 뉴미디어 등장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파악하고, 분석 시기를 구분했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제기한 세 개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설계를 했다. 연구 문제별로 보면, 연구 문제 1과 2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밝혔다. 연구 문제 3은 텍스트 분석을 통해 밝혔다.

표 2. 뉴미디어 의제 연구 설계

연구 문제	연구 주제	세부 내용	분석 방법	분석 단위
1	뉴미디어 도입 시기별 의제 차이	뉴미디어 관련 의제	어절분석	기사 한개
			네트워크분석	문단 한개
2	뉴미디어 도입 시기별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주제의 차이	뉴미디어 관련 주제	네트워크분석	기사 한개
3	기능주의 관점에서 본 시기별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의제 차이	이용자, 사회적, 정책적 관점에서 뉴미디어 의제 분석	어절 분석 네트워크 분석 활용	기사 한개

2. 뉴미디어 분석 시기 구분

한 사회 안에서 뉴미디어의 확산 시기를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새로운 미디어는 시간이 지나면 올드미디어가 되고, 특정 시기별로 등장하는 뉴미디어들의 확산정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표 3. 시기별 분석 대상

시기 구분	분석대상매체	분석 대상 매체 선정 시 고려 기준
초기 1991.12~2001.2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정부 정책 및 뉴미디어에 대한 신문의 태도
확산1기 2001.3~2008.11		
확산2기 2008.12~2012.9		
확산3기 2012.10~2016.3		

그러나 특정시기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컸던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사회 내에서 뉴미디어의 확산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 도입 확산과 관련하여 정부와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언론의 보도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시기별로 주목받은 미디어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의 뉴미디어 확산 시기를 구분해보았다.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이 확산되는 시기에 우리나라는 아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텔레비전 수상기의 확산이 어떤 속도로 이루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래서 1990년대 케이블TV가 등

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2016년 3월까지 26년 동안의 시기를 놓고 뉴미디어 확산 시기를 크게 뉴미디어 도입기, 확산 1기, 확산 2기, 확산 3기 등 4기로 구분해보았다.

3. 분석 대상 기사 검색 방법

각 시기별 분석 대상 매체의 사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다. 검색 키워드에는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등 뉴미디어 관련 핵심 단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다양한 매체를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뉴미디어 관련 키워드는 뉴미디어, 정보사회, 정보화 사회이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관련된 키워드는 종합유선방송, 케이블 TV, 인터넷 TV, IPTV, 통신위성, 위성TV, 스카이라이프, 인터넷, PC통신, 모바일, 스마트폰, 종합편성채널, 종편, 소셜 미디어, SNS이다. 시기에 맞게 키워드를 넣어 분석 대상 사설을 검색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든 키워드를 입력해서 사설을 검색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하여 최종 분석 대상이 된 사설은 조선·동아 80건, 한겨레, 경향 105건이다. 시기별로 키워드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새로운 뉴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키워드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표 4. 시기별 키워드 및 분석 대상 사설 건수

시기	분석 매체	건	키워드
초기 1991.12~2001.2	조선, 동아	14	정보화 사회, 뉴미디어, PC 통신, 위성방송
	한겨레, 경향	24	
확산1기 2001.3~2008.11	조선, 동아	21	정보화 사회, 뉴미디어, PC 통신, 무궁화 위성, 위성TV, 케이블TV, CATV, 인터넷, IPTV, 위성방송, 위성, 스마트폰 (2009년부터)
	한겨레, 경향	23	
확산2기 2008.12~2012.9	조선, 동아	29	정보화 사회, 뉴미디어, 인터넷 TV, 초고속 인터넷, 유선방송, 위성방송, 위성, 케이블 TV, PC 통신, IPTV, 소셜 미디어, SNS, 모바일, 스마트폰, 디지털 방송, 디지털 컨버터
	한겨레, 경향	29	
확산3기 2012.10~2016.3	조선, 동아	16	정보화 사회, 뉴미디어, 인터넷 TV, 초고속 인터넷, 유선방송, 위성방송, 위성, 케이블 TV, PC 통신, IPTV, 소셜 미디어, SNS, 모바일, 스마트폰, 디지털 방송, 디지털 컨버터
	한겨레, 경향	29	

시대별로 사실이 뉴미디어 의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규명하기 위해 사실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본래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의미 분석(semantic analysis)을 실시하는데, 의미 분석은 텍스트에 자주 언급된 단어가 중요하다고 보고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14]. 텍스트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단어를 파악해 전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한다. 이 연구는 NodeXL 프로그램 이용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노드엑셀은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이메일 외 엑셀파일 등 다양한 자료를 네트워크 분석할 수 있다.

노드엑셀은 노드(node)와 노드의 관계를 밝혀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노드, 영향력이 있는 노드를 찾아낸다. 이 연구는 중심성(centrality)분석을 통해 노드의 관계를 밝혔다. 매개 중심성, 인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분석을 통해 핵심 단어와 영향력 있는 단어를 찾았다. 매개 중심성은 노드와 노드 간 최단 거리를 측정해서 평균한 값으로 네트워크에서 가장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노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중재자 역할을 하는 노드를 알 수 있다. 인접 중심성은 노드와 노드의 최단 거리 뿐만 아니라 노드와 연결된 노드의 거리까지 계산한 값이다. 근접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이 높은 노드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위세 중심성은 노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노드와 연결되었는지를 측정한 값으로 위세 중심성 값이 클수록 영향력 있는 단어, 사람을 많이 안다고 할 수 있다[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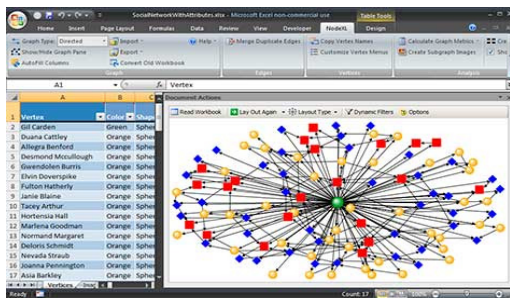


그림 2. NodeXL 프로그램

다음으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기별로 언론에서 다루는 의제가 이용자 관점인지, 사회적 관점인지, 정책적 관점인지를 알아보았다.

표 5. 사실 의제를 측정하기 위한 유목 조작적 정의

	기능주의 관점
이용자 관점	뉴미디어의 개인적 효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용 동기
사회적 관점	뉴미디어의 사회적 효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책적 관점	뉴미디어 도입 필요성, 뉴미디어 정책의 문제점

IV. 분석 결과

뉴미디어 관련 의제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사실에서 다룬 내용을 이용자 관점, 사회적 관점, 정책적 관점에서 구분해 보았다. 먼저 뉴미디어 초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조선, 동아와 한겨레, 경향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1. 연구문제 1: 시기별 의제의 차이 분석 결과

1) 도입 초기 : 사실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뉴미디어 도입 초기는 보수 정권이 집권한 시기와 김대중 진보 정권이 집권한 시기를 포함한다. 집권 시기별로 언론의 사실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먼저 진보 언론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방송위-위헌-인선, 방송위-선정-사업자-위성방송-재벌-취선-안 된다, 방송위-사업선정-갈팡질팡 등 방송위의 위헌 인성과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에 대해 재벌이 독점할 우려를 나타냈다. 진보언론 그래프 밀도는 0.016752이었고, 중심성 값 평균은 매개 중심성, 295.000, 인접 중심성 0.123, 위세 중심성 0.010으로 나타났다.

보수 언론의 경우 인터넷-고속-대용량-연결하는 으로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사이버-주식거래로 연결되어 인터넷을 통한 사회 변화의 기대를 나타냈다. 이 시기 무궁화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무궁화-1호-진입과 우리나라-최초-위성-과학위성으로 연결되어 무궁화

터넷과 포털의 등장으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포털-여론몰이, 블로그-확산으로 연결되어 포털이 여론을 편향적으로 형성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방송-정치적-편향성으로 연결되어 방송의 편향성 문제도 제기했다. 미디어-언론-소통-쌍방향으로 연결되어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미디어도 독자와 쌍방향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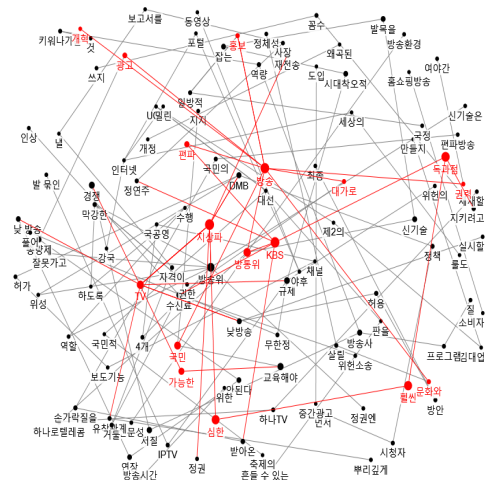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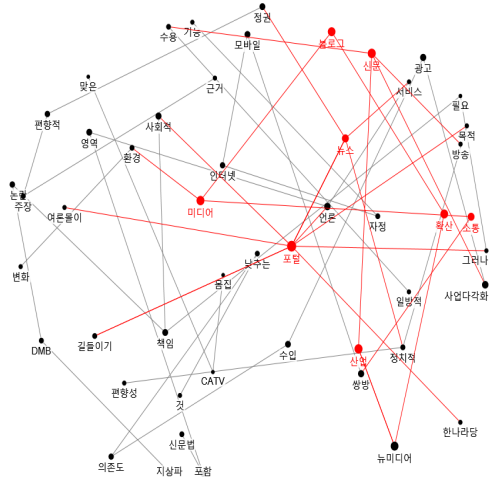


그림 4. 뉴미디어 확산 1기 - 한겨레·경향(위), 조선동아(아래) 신문 사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이 시기 보수 언론의 사설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KBS-독과점-횡싹-심한, KBS-정연주-사장-보고

서를-널 자격이로 연결되어 KBS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시기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집권한 시기로 보수 언론에서는 KBS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편파-방송-권력으로 연결되어 KBS가 정권에 유리한 방송을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뉴미디어 정책에 대해서도 신기술- 발목을 -잡는- 일방적- 국정으로 연결되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상파 - DMB - 위성-보도기능, IPTV- 규제- 시대착오적으로 연결되어 방통위의 정책을 비판했다. TV-낮 방송-실시-안 된다, TV-낮방송- 허용-방안으로 연결돼 낮방송의 폐해를 지적했다.

네트워크에 나타난 단어들의 중심성 분석 결과, 보수 언론의 경우 지상파와 KBS, 방송, 독과점, 방송위가 높게 나타났다. 보수 언론에서는 지상파의 대표적인 공영 방송인 KBS가 정권에 부합하는 경향을 비판하고 경계한 것으로 생각된다. 저질, 편파의 매개 중심성도 1056.000과 980.167로 높게 나타나 방송의 공정성, 공익을 강조했다.

보수 언론이 지상파 방송, KBS에 주목한 것에 비해 진보 언론은 당시 중요한 뉴스 전달 매체로 자리매김한 포털에 주목했다. 포털, 신문, 산업, 미디어, 뉴미디어 순으로 매개 중심성 값이 높았고, 뉴미디어, 확산, 블로그 등도 높게 나타나 보수 언론과 다르게 의제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뉴미디어 확산 1기 조선동아, 한겨레 경향 사설 중심성 분석 결과 비교

한겨레 경향		조선 동아	
주요 단어	매개	주요 단어	매개
포털	367.667	지상파	4541.333
신문	269.000	KBS	4295.000
산업	267.000	방송	4103.333
미디어	263.000	독과점	3677.167
뉴미디어	240.000	횡싹	3296.667
확산	238.000	심한	3284.667
블로그	234.000	방송위	2796.500
뉴스	182.667	TV	2475.167
소통	174.000	국민	2135.000
사업다각화	150.000	규제	1330.500
언론	143.000	저질	1056.000
광고	130.000	편파	980.167
사회적	125.000	DMB	910.500

3) 뉴미디어 확산 2기: 사설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뉴미디어 확산 2기는 보수 정권이 집권한 시기이다. 이 시기 진보 언론에서 쟁점화 한 것은 종편이다. 진보 언론의 경우 종편-대변자-노릇, 종편-심사, 종편-개국-민주주의의-재앙으로 연결되어 종편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다. 종편에 대한 비판 외에 뉴미디어 관련해서는 구글-개인정보-무한수집으로 연결되어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진보언론 그래프 밀도는 0.015289, 매개 중심성 38.388, 인접 중심성 0.045, 위세 중심성 평균은 0.008로 나타났다.

뉴미디어 확산 2기 진보 언론과 달리 보수 언론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여론 형성과 확산에 주목했다. SNS-경선쇼-민의-왜곡-해설-루머로 연결되어 선거에서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경계했다. 모바일-여론-루머와 모바일-팬클럽으로 연결되어 모바일의 정치적 영향력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스마트폰-선진국-이용자-파괴력으로 연결되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자의 연령대가 젊고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진보 진영에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보수언론의 그래프 밀도는 0.009109으로 나타났고 중심성 값 평균은 매개 중심성 170.718, 인접 중심성 0.053, 위세 중심성 0.00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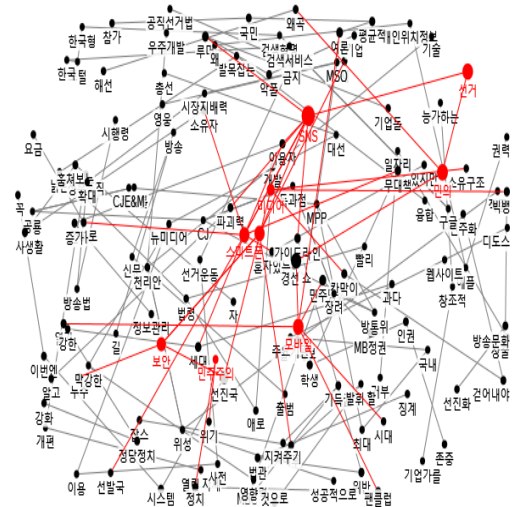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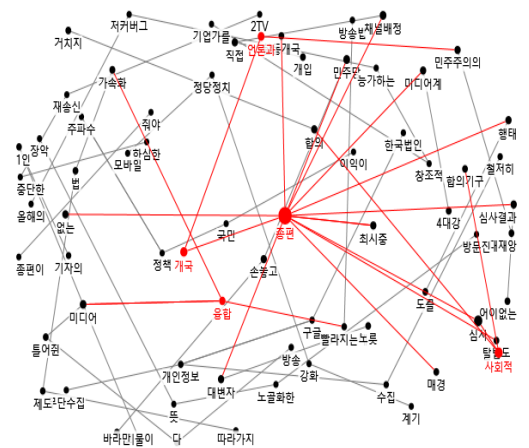


그림 4. 뉴미디어 확산 2기 - 한겨레경향(위), 조선 동아(아래) 신문 사설 네트워크 분석 결과

뉴미디어 확산 2기 중심성 값을 분석한 결과, 진보 언론의 경우 종편의 매개 중심성 값이 1105.000으로 가장 컸고, 심사, 사회적, 민주당 순으로 나타났다. 개국, 채널 배정, 언론, 미디어도 높게 나타나 종편의 개국을 주로 쟁점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의, 대재앙도 자주 등장 해 진보 언론이 종편 개국에 얼마나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보수 언론의 경우 SNS, 민의, 선거, 모바일, IT, 스마트폰, 경선 쇼 순으로 매개 중심성 값이 높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여론 형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린 우리당의 모바일 선거를 경선 쇼로 부르면서 모바일 여론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표 8]은 지면 관계상 매개 중심성 값만 제시했다.

표 8. 뉴미디어 확산 2기 조선동아, 한겨레 경향 사설 중심성 분석 결과 비교

한겨레 경향		조선 동아	
주요 단어	매개 중심성	주요 단어	매개 중심성
종편	1105.000	SNS	3859.000
심사	294.000	민의	2355.000
사회적	269.000	선거	2277.000
개국	180.000	모바일	2248.000
민주당	138.000	IT	2048.000
채널배정	138.000	스마트폰	2033.000
언론	138.000	경선 쇼	2025.000

표 9. 뉴미디어 확산 3기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사설 중심성 분석 결과 비교

한겨레 경향		조선 동아	
주요 단어	매개 중심성	주요 단어	매개 중심성
방송	443.667	방송	7943.667
국회	221.000	지상파	7747.500
종편	208.000	국가	4047.000
고화질	192.000	OECD	3384.000
통과	149.000	통신요금	3266.000
독립성	93.667	인터넷	3086.500
외국메신저	93.000	포털업체	2900.000
먼	65.333	숨을, 네이버, 확산	2774.000
텔레그램	64.000	범죄자	2646.000
자율성	20.500	천하	2532.000
서비스	33.000	모바일	2582.000
허가보다	33.000	정책	2270.833
지탄받고	33.000	CCTV	2250.000
과도한	33.000	범죄자	2158.000
-	-	스마트폰	2067.500
-	-	방송사	1912.500
-	-	무서운	1694.000
-	-	시대	1603.000
-	-	카카오	1583.000
-	-	중국	1430.000

2. 연구문제 2 :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을 통해 본 뉴미디어 관련 주체의 변화

시기별로 뉴미디어 관련 주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 결과 뉴미디어 정책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나 새로운 정책의 도입과 관련해서 주무 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뉴미디어의 도입이나 활성화는 정책과 관련이 있고 특히 종합편성채널 등은 신문사의 사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 정권인지 진보 정권인지에 따라 언론의 프레임이 다르게 나타났다[표 10].

뉴미디어 확산 초기는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집권한 시기이다. 뉴미디어 확산 초기 보수 정권이 집권한 시기를 보면, 보수 언론은 청소년, 지역 민방, 무궁화 위성이 주체이고, 진보 언론은 청소년, 상업방송이 주체이다. 진보 정권이 집권한 시기 보수 언론은 MBC와 방송위원회가 주체이고, 진보언론은 국회가 주체이다. 위성방송은 초기 주체로 나타났다.

확산 1기는 진보 정권이 집권한 시기로 이 시기 사설의 주체는 방송사와 포털로 나타났다. 진보 언론에서는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한 포털을 방통위가 길들이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보수 언론에서는 KBS 정연주 사장을 비판하면서 KBS의 정치적 편향성과 독과점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확산 2기와 3기는 보수 정권이 집권한 시기이다. 확산 2기에 보수 언론은 모바일과 SNS등 소셜미디어를 주로 다룬 반면 진보 언론은 2012년 개국한 종편을 쟁점화 했다. 보수 언론에서는 모바일 확산으로 인한 모바일 여론을 경계했으며, 모바일 여론이 대표성이 없고,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바일 여론이 진보적 성향의 이용자들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당시 열린 우리당의 모바일 경선을 정치쇼로 폄하했다. 반면 진보 언론은 종편이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 개인 정보 보호를 쟁점화 했다.

확산 3기 보수 언론은 지상파와 통신, 모바일을 주로 다루었고, 진보 언론은 종편과 국회가 주체인 사설이 많았다. 보수 언론은 지상파 독과점과 통신사 주과수 배정 논란 및 모바일의 영향력에 주목했다. 진보 언론은 종편 고화질 방송과 미디어법을 다루었다.

표 10.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본 뉴미디어 시기 별 주체

시기	초기 1991.12~2001.2	확산1기 2001.3~2008.11	확산2기 2008.12~2012.9	확산3기 2012.10~2016.3
	언론	1991~1997년 보수정권 1998년~2001년 진보정권	진보정권	보수정권
보수 언론	청소년, 서울방송, 지역민방, 무궁화1호, MBC, 방송위원회, 위성방송	방송사	모바일, SNS	지상파 통신 모바일
진보 언론	청소년, 상업방송, 위성방송, 국회	포털	종편	종편 국회

3. 연구문제3 : 이용자, 사회적, 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본 뉴미디어 의제 분석 결과

[표 11]은 이용자 · 사회적 · 정책적 관점에서 뉴미디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것이다. 이용자 관점에서는 뉴미디어가 개인에게 주는 영향을 다룬 것이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뉴미디어의 사회적 효과 및 영향을

다룬다. 정책적 관점은 뉴미디어 관련 정책을 다루고,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다. [표 11]을 보면, 이용자 관점에서 뉴미디어 관련 이슈를 보면 확산 초기 조선·동아는 정부의 E메일 검열을 비판했고, 한겨레는 음란 비디오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했다. 확산 2기 조선·동아는 스마트폰 세대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혼자 이용하는 현상을 비판했다. 확산 2기 한겨레에서는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을 비판했고, 확산 3기 스마트폰 감시와 통신사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다뤘다.

표 11. 이용자사회적정책적 관점에서 언론 별 사실에서 다른 의제 분석 결과

		조선·동아	한겨레
이용자 관점	초기	정부의 E메일 검색	10대 음란비디오 영향
	확산 1	-	-
	확산 2	스마트폰 세대(혼자 이용)	구글 개인정보 수집
사회적 관점	초기	-	경찰의 스마트폰 감시 논란 SK플래닛의 빅브라더식 개인정보 수집
	확산 1	UCC 부정적 영향력	포털 여론몰이(보수층의)정치적 목적 포털 길들이기 반대
	확산 2	선거에서 SNS의 부정적 영향력, 기업활동에서 SNS 루머의 영향, 모바일 정치 민주주의 위기, 민주당 모바일 경선 민의 왜곡	-
정책적 관점	초기	K뱅크 카카오톡 4차 산업혁명 가상현실 플랫폼	다음, 카카오 합병의 의미 포털 투명성 보고서 새누리당의 포털 길들이기 모바일 쇼핑 혁명
	확산 1	방송광고총량제 방송위 역할 비판(저질프로그램 규제 포함) 방송위 지상파 TV 낮방송 허용, 정부방송 보도 허용 비판 KBS 강제 수료 위험소송 IPTV 규제 비판	10주년 CATV 운영 및 프로그램의 질 지역 지상파 DMB 논란 책임
	확산 2	IT 보안 선진국 시스템 미디 어법 거부 비판 천리안 위성 을 통한 일기예보 케이블 CJ 독과점 논란 첨단기술 융합 막는 법령 고쳐야 함	중편 개국 논란, 최시중 위원장 중편 대변자 노릇, 중편 횡포 방문진 구성 비판 언론법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확산 3	주파수정책 재검토 해야 이통사들의 제4이동통신사 반대	사이버 사찰법 논란 테러방지법 반대	

사회적 관점에서 확산 초기 한겨레는 도서관 정보화의 중요성과 방송의 공익성·독립성을 다뤘다. 확산 1기 조선·동아는 UCC의 영향력을 염려했고, 한겨레는 보수층이 포털을 통한 여론 물이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치적 목적의 포털 이용을 언급했다. 확산 2기 조선·동아는 소셜 미디어와 모바일이 정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계했다. 확산 3기 조선·동아는 인터넷 은행과 4차 산업혁명을 다뤘고 한겨레는 다음과 카카오 합병과 모바일 쇼핑을 다뤘다. 확산 1기와 마찬가지로 보수 정권의 포털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경계했다.

뉴미디어 의제와 관련해서 정책적 관점에서의 쟁점화가 가장 많았다. 확산 초기에는 공통적으로 상업방송의 개국 문제를 다뤘다. 조선·동아는 방송광고법과 방송위원회 구성을 비판했고, 한겨레는 통합방송법안, 방송사 재허가, 위성 방송 주체 문제를 다루면서 사이버 테러 대책 문제도 제기했다. 확산 1기 조선·동아는 지상파 낮방송, KBS 강제 수료로 위험문제, IPTV 규제, 방송광고 총량제 등 당시 방송 정책을 비판했고, 한겨레는 CATV와 위성방송 DMB 논란을 다뤘다. 확산 2기 조선·동아는 미디어 법, 케이블TV 독과점 및 첨단 기술 융합 관련 개정을 다뤘고, 한겨레는 중편 개국을 비판했다. 확산 3기 조선·동아는 주파수 정책과 제4이동통신 할당 등 정부의 통신정책을 다뤘고, 한겨레는 사이버 사찰법, 테러방지법을 쟁점화 했다.

V. 결론

이 연구는 1990년대 초 뉴미디어가 도입된 이래 2016년 3월까지 뉴미디어 관련 의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규명하고 언론사의 정치성 성향에 따라 정부의 뉴미디어 정책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신문 사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뉴미디어의 도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발전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의 정책 의지가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해서 언론의 정치 성향에 따라 정부의 뉴미디어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사설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통해 뉴미디어 확산 시기별 주체를 분석 했고, 언론이 뉴

미디어를 이용자 관점에서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다루는지, 사회적 영향을 다루는지, 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지 분석했다.

언론은 정책적 측면에서 뉴미디어 의제를 많이 다뤘는데, 정책적 측면에서 뉴미디어 의제를 다룰 때 진보 언론은 보수 정권의 뉴미디어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 언론은 진보 정권의 뉴미디어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문 사설에서 뉴미디어 관련 정책 의제를 다룰 때 정권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는 정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뉴미디어의 도입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다룰 때 보수 언론은 진보 정당이나 집단이 모바일이나 SNS를 이용해 민의를 왜곡하고 신뢰할 수 없는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러한 현상은 진보 정권이 집권할 때 진보 언론에서 똑같이 나타났던 현상이다. 뉴미디어 확산 1기 진보 언론은 포털을 통한 보수 집단의 민의 왜곡을 비판했다. 확산 2기 종합편성채널(중편)의 개국과 관련해서는 중편을 소유한 보수 언론과 소유하지 않은 진보 언론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표 12].

보수 성향의 언론은 SNS와 모바일 같은 뉴미디어를 통한 정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반면, 진보성향의 언론은 보수 정권의 포털 길들이기, 사이버 사찰법 반대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등 정권의 성향에 따라 뉴미디어를 통한 여론 형성에도 다르게 반응한 것을 알 수 있다. 진보 정권이 집권한 시기에 보수 성향의 언론은 방송위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비판을 했고, 진보 성향의 언론은 지상파 DBS 문제와 중편개국을 반대하는 등 뉴미디어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보다는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이익에 따라 다른 태도를 나타냈다.

표 12. 언론사와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의제 차이

		보수정권	진보정권
언론사	보수 성향 언론	SNS 부정적 영향 모바일 정치 비판	방송위 구성 역할 논란
	진보 성향 언론	포털 길들이기 반대 지상파 DBS 논란 중편 개국 반대 사이버 사찰법 반대	CATV 운영 비판(10주년) 위성방송 주제 비판

기능적 관점에서 뉴미디어 의제를 분석한 결과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은 뉴미디어가 도입된 후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나 사회 관계, 삶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구글의 정보수집이나 통신사의 감청, 법원의 개인정보 요구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 침해 이슈에 대해서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른 태도를 나타냈다.

뉴미디어 관련 의제의 확산과정에서 언론들은 뉴미디어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정부와의 관계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독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현상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할 언론의 역할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나라 신문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를 시작할 당시 신문사의 사설은 우리나라에서의 뉴미디어 도입, 확산에 대한 사회의 논의과정과 여론의 수렴 과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분석 결과 신문사들은 자사의 입장에 따라 의제 설정과 현안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의 인허가와 평가에 대해서는 신문사들의 사적 이익에 따라 사설의 주제와 논조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신문사들이 언론으로서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미디어의 도입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뉴미디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조직과 공익을 위한 정부의 통치가 중요하다[11]. 1995년 케이블 TV 개국을 앞두고, 언론들은 필요한 PD 인력이 45백 명선이라고 전망하면서 케이블 TV의 성공을 예측했다[12]. 1995년 개국한 케이블 TV는 제작 인력 및 인프라 부족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다. 위성 스키아라이프나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ung)의 실패도 뉴미디어의 수요와 사회적 확산을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뉴미디어 도입을 위한 초기 비용이 천문학적인 수치인만큼 언론은 정부의 뉴미디어 도입이 사회적으로 필요한지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뉴미디어의 확산 과정에서 뉴미디어 이용비용은 매체의 대중화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언론은 정부의 뉴미디어 가격 책정 및 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신문의 스트레이트 뉴스에서는 찾아볼 수 있었지만, 사설에서는 거의 다루지지 않았다. 뉴미디어의 도입이 실패할 경우 사회적으로 비용 손실이 큰 만큼 사설을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 뉴미디어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언론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부의 뉴미디어 정책을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의견을 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뉴미디어의 도입이 개인과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뉴미디어 도입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비용 대비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뉴미디어가 도입, 확산되는 과정에서 언론의 태도가 정부와의 정치적 성향의 일치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사설을 비교함으로써 뉴미디어 확산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을 규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이 연구는 정부와의 관계가 사설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을 알아보았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에서 두 개씩 매체를 선택했지만, 분석 대상 매체 수를 늘린다면 이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더 많은 논의 점들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오랜 기간의 방대한 사설을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요 의제를 찾아냈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써서 어떻게 뉴미디어 정책을 프레임 했는지 밝히지 못했다. 향후 텍스트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통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이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사설에서 주제와 의제를 밝혔는데, 내용분석을 통해 좀 더 많은 유목을 측정한다면 뉴미디어 의제와 관련해서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1] Y. Pick and Y. Carl, "Mobile Strategies in Political Communi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in Public Communication, 2010. Available at: www.american.edu/soc/communication/upload
- [2] P. Shoemaker and S. Reese, *Mediating the messages: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Longman publication, 2014.
- [3] K. F. Kahn and P. J. Kenney, "The Slant of the News: How Editorial Endorsements Influence Campaign Coverage and Citizens' Views of Candidat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6, No.2, pp.381-394, 2002.
- [4] 박동숙, 조연하, 홍주현, "공직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적 친분 고리 : 출입처에서의 취재원과 기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질적 탐구," *한국언론학보*, 제45-특별호, pp.367-397, 2001.
- [5] M. Gentzkow, N. Petek and J. M. Shapiro, "Do Newspapers Serve the State? Incumbent Party Influence on the US Press 1869-1928," 2014.
- [6] 최현주, "한국 신문 보도의 이념적 다양성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제54호, 제3권, pp.314-348, 2010.
- [7] 김세은,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유사성과 차별성: 1면 구성과 사설의 이념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한국 신문 저널리즘의 성찰 및 미래 전략 세미나 발표문*, 2010.
- [8] Washington Post, "Talk of the Town," *Inside Journalism*, Vol.1, Vol.4, pp.1-15, 2008.
- [9] G. Tuchmann,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 [10] 김경희, 노기영, "한국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5권, 제1호, pp.361-387, 2011.
- [11] 김세은,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유사성과 차별성: 1면 구성과 사설의 이념성을 중심으로," *한국*

언론학회 한국 신문 저널리즘의 성찰 및 미래 전략 세미나 발표문, 2010.

- [12] 최현주, “한국 신문 보도의 이념적 다양성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제54호, 제3권, pp.314-348, 2010.
- [13] 이원섭, “언론의 남북문제 보도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정부 정책 평가,”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5호, pp.329-411, 2006.
- [14] 이미나, 홍주현, “메르스 확산에 따른 정부의 위기 대응 메시지 언어네트워크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5호, pp.124-136, 2016.
- [15] 이병엽, 임종태, 유재수,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셜 미디어 분석 기법의 활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pp.216-217, 2013.

김 경 희(Kyung-Hee Kim)

정회원



- 198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학사)
 - 199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석사)
 - 2000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언론학 박사)
 - 1988년 10월 ~ 1997년 12월 : 중앙일보 기자
 - 2010년 9월 ~ 현재 : 한림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인터넷 저널리즘, 소셜미디어, 여성과 뉴스.

저 자 소 개

홍 주 현(Juhyun Hong)

정회원



-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학사)
 - 199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석사)
 - 2009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언론학 박사)
 - 2012년 3월 ~ 2013년 2월 : 베이징대 신문방송학과 연구학자
 - 2013년 3월 ~ 현재 :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소셜미디어, 여론, 네트워크 분석, 루머 확산